

북한의 보육 정책 및 현황

이소희¹⁾ · 광영숙²⁾ · 정유숙³⁾ · 이소영⁴⁾ · 김봉석⁵⁾ · 손석한⁶⁾ · 정운선⁷⁾
 양재원⁸⁾ · 방수영⁹⁾ · 황준원¹⁰⁾ · 홍민하¹¹⁾ · 이연정¹¹⁾ · 반건호¹¹⁾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¹⁾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²⁾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³⁾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⁵⁾ 연세신경정신과-소아청소년정신과의원,⁶⁾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⁷⁾ 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⁸⁾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⁹⁾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¹⁰⁾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¹¹⁾

Current Situation and Policies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North Korea

So Hee Lee, M.D.¹⁾, Young Sook Kwack, M.D.²⁾, Yoo-Sook Joung, M.D.³⁾, Soyoun Irene Lee, M.D.⁴⁾,
 Bongseog Kim, M.D.⁵⁾, Seok Han Sohn, M.D.⁶⁾, Un-Sun Chung, M.D.⁷⁾, Jaewon Yang, M.D.⁸⁾,
 Soo-Young Bhang, M.D.⁹⁾, Jun-Won Hwang, M.D.¹⁰⁾, Minha Hong, M.D.¹¹⁾,
 Yeon Jung Lee, M.D.¹¹⁾, and Geon Ho Bahn, M.D.¹¹⁾

¹⁾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cheon Hospital, Bucheon, Korea

⁵⁾Department of Psychiatry, Sanggye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Korea

⁶⁾Yonsei Clinic of Psychiatry, Seoul, Korea

⁷⁾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⁸⁾Maum to Maum Clinic, Seoul, Korea

⁹⁾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ulji University, Seoul, Korea

¹⁰⁾Department of Psychia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uncheon, Korea

¹¹⁾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In order to resolve the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free child care policies with an increased budget. In anticipating the effects and problems of our system, it will be worthy of attention to refer to the child care systems of other countrie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past and present polic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hild care system in North Korea. North Korea started its free child care system earlier than that of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the women's labor force and rearing children to be revolutionary men of Juche type (Kimilsungism), in order to construct a communistic society. 'Child Care Education Law', which is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hild care system, regulates institutions for nursery schools and kindergarten and informs people that the country is responsible for support of child care. Despite their interest and progres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the child care system until the 1980s, the free child care system was partially disrupted, and discrepancies between ideology and actual situation were revealed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from the 1990s. Because people's survival and physical health have been threatened, it is barely possible to find any stud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institutional child care from early childhood and the instillation of unique ideology by group education from the preschool period on mental health.

KEY WORDS : North Korea · Free Child Care · Mental Health · Child Daycare Center.

접수완료 : 2014년 1월 20일 / 수정완료 : 2014년 2월 1일 / 심사완료 : 2014년 2월 2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Geon Ho Bah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702, Korea
 Tel : +82.2-958-8542, Fax : +82.2-957-1997, E-mail : mompeian@khu.ac.kr

Address for correspondence: So Hee L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 245 Eulji-ro, Jung-gu, Seoul 100-799, Korea
 Tel : +82.2-2260-7311, Fax : +82.2-2268-5028, E-mail : psyhee@hanmail.net

본 연구는 '영유아 가정보육 및 보육기관 적정 연령 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산하 정책연구소가 지원한 '2013년 소규모 연구'로 진행되었음.

서 론

출산을 저하 현상에 기인한 미래 생산인구의 축소와 부양 인구의 기형적 증가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후 남한으로 칭함) 정부는 영유아무상보육정책을 도입하였다.¹⁾ 그동안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서비스 미흡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 및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었던 만큼, 이 정책이 저출산을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한은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보육정책이 출발하였고 200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이 급증하면서 기관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다.²⁾ 남한의 보육 기관 이용률은 2011년 기준으로 0-2세 영아는 평균 54.1%, 3-5세 유아는 평균 82.0%였다.³⁾ 2012년부터는 '사실상의 의무교육' 효과를 기대하며 만 3-5세 유아대상의 '누리과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³⁾ 즉,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비용지원과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많은 유아들이 보육 기관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산하 기획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산하 정신건강정책연구소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이 미래 가정의 부모와 아동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성과와 방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장단기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⁴⁾ 단기 연구과제의 하나로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또는 시행되고 있는 보육제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제도를 이해하고, 이 정책이 영유아의 정신건강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한다.

검토 대상국 중 하나로 선정한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 교류가 단절되면서 남한과 언어·문화적 이질감이 점차 커가고 있으나, 같은 민족이면서 또한 남한보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선행 국가로서 그 보육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보육 이념 및 정책과 보육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론

남한 정부가 1990년대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면서부터 비로소 보편적 보육 개념이 도입되고 보육사업의 공공화 논의가 시작된 데 비하여, 북한은 1970년대에 이미 본격적으로 보육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1. 북한 보육 제도의 추진 과정

북한의 보육 제도는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되어 왔다.⁴⁾ 해방이후 북한은 새조선 건설을 위해 일제 시대의 노예교육 체제를 뿌리 뽑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인민 민주주의적 유일 교육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1946년에 최초의 탁아소인 '3·8탁아소'를 설립하였고, 1947년 인민보건국 명령 제5호 '탁아소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탁아소를 보편화 시키고자 하였다. 유치원은 1946년 말에 시작되었고 인민학교에 병설되어 있다가, 1947년 취학 교육기관으로 독립시켰다. 1950년부터는 여성 노동력 동원 및 전쟁고아 수용을 목적으로 탁아소·유치원을 확대하였고, 경제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53년부터 국가 부담으로 탁아소·유치원의 대대적 설치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면적 건설 시기로, 어린이 보육에 보건, 위생과 관련된 자원과 교원의 자격 기준을 높이는 등의 내용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는 사회주의 주체사상 수립기로서,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하였다. 탁아소를 보낼 것인지의 여부는 결정 권한을 부모에게 일임하였으나, 교육상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만 5세가 되는 모든 유아에게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1976년에는 국가적 보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어린이 보육 교양법'을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7호로 채택하였다. 남한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이원적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일원적 체계이고 주로 통치자의 교시와 연설이 반영되어 있어, 이후 조금씩 수정은 되어 왔으나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1977년 '사회주의 교육의 테제'를 발표하면서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건을 구비하도록 명시하였다. 1980년에는 노동당 6차 대회에서 '탁아소와 유치원의 과학적 위생관리와 사회주의적 교양을 받으며 자라도록' 하는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였다. 1993년에는 어린이 보육 교양법 세칙 제정을 통해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여성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1999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서 어린이 보육 교양법을 수정 보충하였다.

2. 북한의 보육 및 교육 이념 및 목표

북한에서 어린이 보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한 배경에는 첫째, 노동력 확보에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것, 둘째, 사회주의 원리에 입각한 집단주의적 사상교육을 어릴 때부터 주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⁵⁾ 북한은 1940년대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도입하여 북한의 어머니에게는 공산주의적 어머니상, 즉 노동 전사이자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이중적 역할이 부과되었다. 노동현장에서는 능동적으로 참여

하는 혁명성을 발휘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해야 한다.⁶⁾

1970년대 주체사상이 확립된 후부터는 통치자에게 충성하는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1976년 제정된 ‘어린이 보육 교양법’은 크게 네 가지 보육이념을 담고 있다.⁷⁾ 첫째,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제11조)라고 되어 있듯이, 어린이를 주체형의 혁명적 인간으로 키운다는 주체사상의 보육이념, 둘째,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제1조)에서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 인재로 키우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 양성 보육이념, 셋째,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데 이바지한다”(제6조)에 내포된 여성을 육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보육이념, 넷째,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운다는 조기교육제도로서의 보육이념 등이다.

한편, 북한에서의 교육 이념은 헌법 제43조에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⁸⁾ 이러한 교육의 이념에 따른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지침은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사와 명령을 정리하여 1977년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다.⁴⁾ 북한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 북한의 보육 체계

북한의 보육서비스는 만 4세 미만을 대상으로 보육하는 탁아소와 만 4세 이상을 교육하는 유치원으로 나뉘는 이원적 행정 체계이다.⁹⁾ 탁아소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젓먹이반(1-6개월), 젓떼기반(7-18개월), 교양반(19-36개월), 유치원 준비반(37-48개월)으로 세분화된다. 남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북한과는 기관의 발달과정이나 대상 연령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유치원은 낮은 1년, 높은 1년의 2년제이다.

남한의 경우 어린이집은 빈곤층 자녀를 중심으로 아동복지 혹은 가정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출발하였고, 유치원은 부유층 자녀를 중심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조기 교육을 목적으로 초창기에 시작되어 개별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연령이 중첩되나,¹⁰⁾ 북한은 모두 국

가가 운영하여 연령 중첩 없이 어린이 연령에 따라 해당 보육기관이 정해져 있다.

북한의 탁아소는 여성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필요한 경우 어린 나이에 탁아소(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데려감) 혹은 월탁아소(1개월간 맡김)의 형태로 장기간 집단생활을 하는 보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¹¹⁾ 어린이 보육 교양법 제40조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여성들의 일터 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직장여성을 위해 전국 모든 지역, 중대형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에 탁아소를 설치하여 근무시간에도 자녀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⁶⁾

남한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주무부서이듯이 북한의 탁아소는 보건성, 유치원은 교육성에서 담당한다.⁹⁾ 특히, 탁아소는 중앙의 ‘보건성 탁아소 지도국’과 지방의 ‘시·도·군 보건부서’에서 담당하는데, 농촌 지역의 탁아소는 중앙의 ‘농업위원회’와 군의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중앙의 탁아소는 중앙예산으로 지원하고, 시·도·군의 탁아소는 지방예산으로 지원하며, 농촌의 협동농장 탁아소는 공동소비자금으로 지원한다.

남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원을 교사로 통칭한다면, 북한의 교원은 탁아소는 보육원, 유치원은 교양원이라 칭한다.⁸⁾ 보육원은 대학을 졸업할 필요가 없으며 중학교 졸업자로서 주로 사회 경력이 있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선발하는 보육원 양성소를 거친다. 교양원은 3년제 교원대학교 혹은 교양원 양성소를 거치거나 통신대학, 교원·사범대학의 야간학부를 졸업 후 교원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하는 비정규과정이다. 교원대학은 3년제인데 2002년부터 유치원 교양원은 2년 6개월로 교육기간을 단축하였다. 교양원 양성소는 사회경력자 중 6개월에서 1년의 단기 과정을 거쳐 교원이 될 수 있는 기관이다. 북한은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는데, 각 도·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재교육강습소’에서 실시하며, 재교육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4. 북한의 보육 내용

1949년 2월 1일 제정된 보건성 규칙 제1호 ‘탁아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탁아소의 담당업무는 1) 유아의 건전한 발육과 양육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시, 2) 유아 질병 예방, 3) 가정 생활에 있어서 유아의 양육 사업에 대한 위생적 문화적 습성 함양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이다(제3조).¹²⁾ 일반적으로 탁아소는 어린이의 생후 개월 수에 따라 하나의 방에 2명의 보육원을 두고 15-20명을 수용하며 모유, 이유식, 밥 먹이기, 용변 가리기 등을 시행한다. 탁아소마다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를 배치하여 일본뇌염, 간염, 감기 등 각종 예방주사를 제공한다.⁶⁾ 탁아소의 보육은 단순한 언어교육(생후 1년 6개월-2년), 보행법, 노래, 유희 등을 통해 조직 생활에 대한 순종심, 집단주의 정신, 김일성을 아버지로 섬기는 정신 교육을 주로 실시한다. 간식을 줄 때마다 “김일성(김정일)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복창하도록 하며 노래는 주로 ‘혁명가요’, 유희는 벽에 걸린 김일성의 사진을 향하여 하는 방식으로 가르친다.¹³⁾

북한 유치원 교육 과정은 정치사상교육(김일성, 김정일 어린 시절) 13%, 지적교육(우리말, 셈세기, 관찰) 23%, 정서 교육(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31%, 체육 교육 13%, 기타(놀이) 20%로 구성된다.¹⁴⁾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유치원 높은반에서는 ‘김일성원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우리말’, ‘셈세기’, ‘그리기’, ‘노래와 춤’ 등을 배우며 각 과목별로 교과서가 지급되는데, 교육시간을 많이 할당하는 과목은 노래와 춤, 놀이, 체육, 우리말 순으로 주입식보다는 놀이식으로 교육한다.

5. 북한의 보육 지원 현황

북한은 1950년부터 한국 전쟁 직후 복구에 필요한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과 전쟁 고아의 증가로 인하여 보육기관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부터 탁아소·유치원의 증설이 본격화되어 1975년도에 이미 약 6만여 개소로 발표된 바 있다.¹³⁾ 그러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탁아소에도 음식 공급이 어려웠으며, 1996년 남북문제연구소의 주장¹⁵⁾에 따르면 당시 3만여 개의 유치원, 탁아소 중 70%가 사실상 폐쇄상태라고 하였는데, 이는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인하여 집에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가정주부가 증가하고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도 초반까지 95%의 기본 예방 접종률을 자랑할 만큼 기본 위생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식량 위기 등으로 인하여 1998년도 조사 결과에서 급성영양장애 15.6%, 만성영양장애 62.3%, 저체중 60.6%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분류상 고위험 영양불량국가로 분류되었다.¹⁶⁾ 그 후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에 힘입어 영양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2004년도도 영유아의 7.0%가 급성영양장애, 37.0%가 만성영양장애로 여전히 위험 영양불량국가에 속한다. 1990년대 말 식량 위기를 겪었던 어린이는 영양결핍으로 인해 향후 북한 보건에서 질병에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⁷⁾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상황보고서¹⁶⁾에 의하면 탁아소·유아원의 한 사람의 보육원당 돌보아야 하는 유아의 수가 많은 수준이라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노후 식수 및 위생시설, 반복되는 전력 부족, 생필

품 공급 부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장난감과 교육 자료도 부족하여 양질의 지도를 제공하기 어렵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 보육 교양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이상적 목표일 뿐이고, 보육원들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및 사회적 관심이나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발육 저하는 생존이나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어린이의 인지능력을 포함한 전반적 뇌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탁아소 이용 실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면담 조사¹²⁾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는 급·간식 제공이 끊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고, 부모에게 식비, 난방비 등 운영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보육 교양 내용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 교육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자녀 양육 방법, 기술, 태도 등의 부모 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탁아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58.9%), 탁아소 미운영(20.0%), 자녀 사망(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사망은 부모 연령 30대 이하에서 14.3%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1990년대 이후의 식량난을 반영한다.

2008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발표¹⁸⁾에 의하면 탁아소·유치원은 약 4만여 개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새로운 유치원을 건설하거나 기존 용량을 확장하여 국가는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원에서 취학 전 교육을 받으며, 더 위생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유치원 건물 및 기타 교육 시설을 재건하고 확장하였다”라고 언급하였듯이 기존에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조금씩 회복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연구 자료의 접근성이다. 대상국가인 북한에서 직접 제작된 논문이나 서적보다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국제기구, 탈북자 등 외부에서 작성된 자료를 참조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범국가적 보육 정책을 시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자체 평가 자료가 있다면 우리의 영유아무상보육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참조가 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향후 제언

북한은 여성 노동력의 활용 및 주체사상·사회주의 집단 초기 교육을 목적으로 남한보다 훨씬 일찍부터 국가 차원에서 보육기관을 세우고 무상보육을 추진하였다. 남한과 비스

하게 보육기관을 연령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나누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어린이 보육 교양법'이라는 일원적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탁아소의 보육원과 유치원의 교양원도 각각의 교원 양성 체계에 따라 배출되고 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 경제난 이후 보육 기관의 일부 폐쇄, 실질적 무상보육의 붕괴, 보육·교육 내용의 질적 저하를 겪어왔다. 따라서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불량 및 질병 취약성으로 인하여 아동의 생존과 성장 같은 문제가 북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조기 시설 보육 및 통치자의 우상화 교육, 영양결핍의 후유증 등 북한의 독특한 보육·교육 체계가 어린이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장기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 북한· 무상보육· 정신건강· 보육시설.

References

- 1) **Bahn GH, Hong M, Lee YJ, Kwack YS, Jung YS, Lee SI, et al.**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on children's mental health (I) - Status and prospect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ies of Korea -.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13;24: 3-12.
- 2) **Seo MH, Kim HJ.** The result and task of child care policy.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2.
- 3) **Lee YJ, Koo JY.** Integrated way on child care support area preparing for reunification.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3 [cited 2014 Jan 20]. Available from URL:http://www.kicce.re.kr/kor/publication/02.jsp?mode=view&idx=8114&startPage=10&listNo=62&code=report01&search_item=&search_order=&order_list=10&list_scale=10&view_level=0
- 4) **Kim SW.** A study on child care law in North Korea: 2009 report on the study of laws in South & North Korea (II). Seoul: North Korea Laws Information Center;2009 [cited 2014 Jan 20]. Available from URL:<http://world.moleg.go.kr/KP/report/3023?pageIndex=2&y=0&searchCondition=ALL&x=0&searchKeyword=2009>
- 5) **Hwang NM, Lee SS, Lee SY.** The status of health,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of North Korean people. Seoul: KIHASA;2012.
- 6) **Kim WH.**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and the future progress direction of policy on North Korea.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cited 2014 Jan 20]. Available from URL:http://www.kwdi.re.kr/reportView.kw?currPg=2&sgrou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2&cmsCd=CM0004&pnum=1&cnum=0&sbjCdSel=&rptCdSel=&src=INCHARGE_NM&srcTemp=%EA%B9%80%EC%9B%90%ED%99%8D&ntNo=657&pageSize=10
- 7) **Kim YJ.** A study on the day care system in North Korea. Pyeongtaek: Pyeongtaek Univ.;1997.
- 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9 Summary on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2009.
- 9) **Sung YH, Kim SJ.** A comparative study on the day care systems for childre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 Korean Soc Child Welf 2001;12:108-133.
- 10) **An SH.** A study of awareness between the teachers and parents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on the university syst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day care. Seoul: Dongguk Univ.;2012.
- 11) **Lee YJ.** Research on child care system of North Korea and issue on women. J Early Child Educ Educare Welf 2006;10:53-77.
- 12) **Lee YJ, Seo MH, Kim SH, Park YJ.** A study on the child rearing in North Korea preparing for reunification.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2.
- 13) **Institute of North Korean Studies.** A comprehensive survey on North Korea (I) 1945~1982. Seoul: Cheonguk Elite;1983. p.1282.
- 14) **Choi MS.** A study on curriculum contents of kindergarten of North Korea. J Korea Open Assoc Early Child Edu 1996;1:203-228.
- 15) **Kim KO.** Health, support and tasks on North Korean children. Proceedings of the 56th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2004 Apr 4;Seoul. Available from URL: http://www.nuac.go.kr/actions/BbsDataAction?bbs_idx=5916&menuid=G020501&bbs_id=G020501&cmd=view&template=01
- 16) **Han YS.** UNICEF's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DI review on North Korean economy 2003;25-33 [cited 2014 Jan 20]. Available from URL:http://www.kdi.re.kr/report/report_class_e4.jsp?pub_no=8540
- 17) **Kim HR.** Overview of nutritional status of policy directions of supporting children's nutrition in North Korea. Health Welf Policy Forum 2007;132:24-34.
- 18)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Pyongyang, DPR of Korea.** Country report on education for All (EFA) National Mid-Decade Assessm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08 [cited 2014 Jan 20]. Available from URL:<http://dev.undprk.matth.eu/content/uploads/2012/03/MDA-Report-2008.pdf>